

# “노태우 전 대통령, 5·18묘역 참배 의사”

### 장남 재헌씨 대신 무릎 꿇고 5월 영령 추모 방명록에 “희생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죄” 5·18 당시 신군부 지도자 직계가족 중 처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54)가 이같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5·18묘역을 찾아 5월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장남 재헌씨가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재헌씨는 이날 5월 영령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했고, 윤상원·박관현 열사사와 전재수 유공자 묘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재헌씨는 이들 묘역 앞에서 오랜시간 무릎을 꿇고 아버지 대신 참회했고 추모관과 유영보관소, 구묘역 등도 1

시간 50분 남짓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적었다.

재헌씨는 5·18 당시 신군부 지도자의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묘역에서 참배한 것이다.

재헌씨 측에 따르면 현재 거동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 전 대통령이 ‘5·18묘역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재헌씨가 묘역을 찾았다.

재헌씨는 아들로서 노 전 대통령 대신 이곳을 찾아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사진 등으로 이곳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지난 23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재헌씨는 이날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적었다.

게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유언비어 때문에 발생했다고 기록해 당시 5·18 폄해 논란을 일

으켰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오랜 투병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동구, 동구책정원 독서감상문 대회 개최

광주 동구가 주민 정서함양과 건전한 책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한 ‘2019 동구책정원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책정원 선정도서 대상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4~6학년)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선정도서 중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도서목록과 참가신청서·서식 등은 동구 홈페이지와 구정 앱 ‘두드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제출분량은 제출서식(A4) 기준 초등부 1매, 중·고등부 1매, 일반부 2매이며 초등부에 한해 원고지 제출(20자 5매)도 가능하다.

## 서구, 민선7기 매니페스토 특강 개최

광주 서구는 지난 2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 “매니페스토 특강”을 열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과장 및 팀장,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특강은 공약실천계획이 본격 이행 계도에 올라섬에 따라 참된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 운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선7기 공약실천의 이해와 매니페스토 실천방안’을 주제로 △착한 성장사회와 가치행정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주의의 △성공적 공약실천을 위한 전략 및 정책운영 방향설정 등을 위한 재언 등의 내용을 강연했다.

## 남구 “두려운 질병, 치매는 예방이 중요해요”

광주 남구는 치매 예방 및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환자 워터 프로그램이 오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내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치매 어르신 10명에게 작별 치료를 비롯해 원에 치료, 수공예 치료, 전산화 인지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낮 시간 동안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보호 및 치유를 함께 따라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북구, 권역별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센터 운영

광주 북구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27일부터 용봉동 권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1회씩 권역별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센터”는 가계부채,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2월 개소한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재철)와 협업체 운영한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시간적·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내 27개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월 넷째주 화요일 권역별 대표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소금융, 신용관리 방법, 채무구제제도 등의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오는 27일 용봉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9월에는 건국동, 10월 우산동, 11월 운안동, 12월 두암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중흥동 권역은 2020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 광산구 수원건강센터, 아토피 가족캠프 성료

24일 광주 광산구 수원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월봉서원에서 ‘제5회 광산 아토피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 100여명이 함께 한 이날 캠프에서는 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 등의 도움으로 강의, 1:1 상담, 식습관 교정, 그림 심리 파악, 공기정화 화분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인형극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배우는 ‘엘리산생애극 배우는 식품알레르기’는 캠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광산구 관계자는 “아토피는 빠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가정 내에서 올바른 관리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임종기 도의원 ‘한국을 빛낸 2019 대한민국충효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을 빛낸 2019 대한민국 충효대상’에서 ‘최우수회화활동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등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일반 기업 및 공직 부문 등에서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서 임종기 의원은 의회활동 분야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종기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지사 등 집행부를 상대로 ‘야무호남 시무국가’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역사책과 바로잡기에 나섰고 전남도 인사행정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전남도립도서관 외벽의 일본어 표기를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도정질문으로 개선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라남도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임진왜란 연구회의 대표위원으로서 국보 76호인 이순신 장군의 시간적 친필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 의뢰 하는 등 투철한 역사관에 입각한 적극적인 행보와 동시에 조례안 대표발의 2건을 포함한 건의안 3건, 공동 발의 130여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종기 의원은 “오늘의 수상은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도민의 활력 넘치는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상생카드’ 추석 맞아 체크카드까지 10% 특별할인 확대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9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할인에는 기존에 선불카드만 실시했던 10% 특별할인을 체크카드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인당 선불카드 월 구매할인 한도 50만원과 체크카드 월 이용할인 한도 50만원까지 매월 최대 100만원을 구매할 수 있어 이용 한도의 10%인 1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할인 판매규모는 300억원으로, 할인 지원예산 30억원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지원 대상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한다.

할인혜택은 선불카드를 구매 시 즉시 제공하고, 체크카드는 당일 이용할인액을 다음 달에 카드 연결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상생카드 구매·발급 방법은 선불카드는 광주은행 전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광주은행 전 지점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서은홍 기자

## “中企,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가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약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납품대금조정협약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약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조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년 단 1009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박한열 (580202-1668628)  
최 후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 43-4 (송공리)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33번지

위 망 박한열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27일

공 고 인 : 박다혜.  
주 소 : 광주 북구 하서로 483번길 37, 602호(응동동, 미래하이클레스)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22일  
공고기간 : 2019. 8. 27~ 2019. 10. 27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임명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남본부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성실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애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예외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노동조정위원회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